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6232

2008年2月 教育學碩士學位論文

# 日本語「てある」의 意味・用法에 關한 研究

金 恩 珍

2008年 2月
教育學碩士(日本語教育)學位論文

# 日本語「てある」의
# 意味・用法에 關한 研究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金　恩　珍

# 日本語「てある」의
# 意味・用法에 關한 研究

*The Meaning And Usage of 「tearu」in Japanese*

*2008*年 2月 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金 恩 珍

# 日本語「てある」의
# 意味・用法에 關한 研究

指導教授　丁　意　祥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日本語教育專攻)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10*月　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金　恩　珍

金恩珍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教　授　金　仁　炫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教　授　曺　榮　錫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副教授　丁　意　祥　印

*2007*年　*12*月　　日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목　　차

ABSTRACT ····· ii

제1장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방법 및 분류 ····· 2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 ····· 4
1. 선행연구 ····· 4
2. 상의 개념 ····· 7
3. 동사의 분류 ····· 7
4. 상의 형식 ····· 8
4.1 일차적, 이차적 상의 형식 ····· 8
4.2 삼차적 상의 형식 ····· 16

제3장 「てある」의 의미의 분석 ····· 25
1.「てある」의 기본적 의미 ····· 25
1.1 대상의 위치변화에 의한 결과상태 ····· 25
1.2 대상의 물리적 변화에 의한 결과상태 ····· 26
2.「てある」의 파생적 의미 ····· 28
2.1 동작의 완료의「てある」 ····· 28
2.2 방임의「てある」 ····· 29
2.3 준비의「てある」 ····· 30
2.4 「てある」와 「ておく」의 의미 비교 ····· 31
2.5 「てある」와 「られてある」의 의미 비교 ····· 32

제4장 「てある」와 「ている」의 비교 분석 ····· 37

제5장 결론 ····· 42

참고문헌 ····· 44

# *ABSTRACT*

*The Meaning And Usage of「tearu」in Japanese*

Eun-jin Kim

Adviser : Prof. Eui-sang Jung, Ph.D.

Majo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We can classfy 「*てある(tearu)*」 which has variety meaning-expressions into 2 meanings (standard meaning and derivative meaning), center on meaning and usage of it which represents Japanese's aspects as follows :

The verb using「てある」is directly work on an object and change it into the new condition, the only verb which indicates movement of human and animals shows a state of the consequence by combining with 「てある」.

The standard meaning of 「てある」 is 「Consequence-Condition」. This can be separated the one that a position of an object is changed according to the verb's uasge or the context and the another shows the change of an object.

And 「てある」's derivative meanings are 「Completion of Act」,「Noninterference」and 「Preparation」.

「Completion of Act」is not the condition of consequence that an object is changed, but just a condition after finish the action. 「Noninterference」means that the verb doesn't work on an object and leaves as it is, is expressed by the verb which shows the meaning of noninterference. 「Preparation」is the condition which has finishing up the action for some purpose. In this manner, 「てある」is interpreted on a variety of meanings according to the context.

「てある」means the continuance of consequence-condition that 「ておく(teoku)」is changed. 「ておく」acts for the preparation, while 「てある」represents that

consequence-condition of the action is kept up as it stands.

「られてある(raretearu) means that removing the agent's purpose by pushing it forward much more than 「られている(rareteiru)」.

「てある」and 「ている」are commonly represented as the meaning-expression of 「Consequence-Condition」. But try to examine the difference, 「Intransitive Verb + ている」represents the consequence-condition of the action which is done by itself not by human's intention. On the other hand, 「Transitive Verb + てある」is the consequence-condition of the action which is done by some external intention or working. For this, 「Transitive Verb + られている」is also done by same things, but doesn't regard the intention of such action and working as a problem.

On this wise, we can know that 「てある」has a variety of meaning-expressions which is represented by not only lexical meaning of using verb but modified expression with the context.

# Ⅰ. 서론

## *1.* 연구목적

한일 양 언어는 문법구조 및 어순, 어휘의 구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점을 많이 보이는 언어라고 하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점은 때에 따라서는 일본어 학습자가 일본어를 배우고 구사하는 데 있어서 오용 및 오류를 범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한일 양 언어는 문법적인 면, 즉 구문적인 면에서 상당히 많은 유사점을 보이는 데, 본고에서는 문법 범주 중 유사점과 상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적표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까지 한일 양 언어의 상적표현 전반에 관한 연구나, 상적 표현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라 할 수 있는 우리말의 「고 있다」와 일본어의 「ている」의 의미・용법에 관한 연구가 중심테마로 다루어져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그다지 중심 테마로는 취급되어오지 않았던 「てある」전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てある」가 상적표현으로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ている」와의 비교분석을 필두로 그 외의 상적 표현과 상관관계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기위해서 상적표현 전반에 관한 고찰을 행하기로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てある」의 의미・용법을 기본적 의미와 파생적 의미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그다지 다루어 지지 않았던 수동형태소인 「られる」와 상적표현인「てある」의 복합 형태인 「られてある」가 가지는 의미・용법에 관해서도 대상에 넣기로 한다.

상이란 각각의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일정 시점에 있어서 어느 과정(단계)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문법법주이다. 즉, 시작단계, 진행단계, 종료단계, 결과상태의 지속단계를 나타낸다.

다음 예문을 통해 「てある」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1) テーブルの上には、桐の小箱が<u>置いてある</u>。 (世界の)

(2) 彼のことはもう調べてある。

(3) 気になるのにほったらかしのままにしてあるものは僕にもたくさんあるよ。(愛を)

(4) それらをもとに、アキの両親がいないときを見計らって計画を話し合った。「十二月十七日の航空券を押さえてある」とぼくは言った。 (世界の)

예문(1)의 「てある」는 동작이 끝난 후, 그 결과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위의(2)의「てある」의 경우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고, 예문(3)은 동작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는 방임을 나타내고 예문(4)는 해당 사태의 완결을 위한 준비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1)은 「てある」의 기본적 의미이고, 예문(2)와 (3), (4)는 「てある」의 파생적 의미이다. 위의 예문과 같이 「てある」의 의미에는 기본적 의미와 파생적 의미가 있다. 위와 같이 똑같은「てある」의 표현이더라도 나타나는 의미는 다양하다. 본고에서는「てある」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 의미인 「결과상태」와 파생적 의미인 「동작의 완료」와「방임」「준비」를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 그 각각의 의미가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られてある」는 「てある」와 같이 어떤 목적이라는 의도성을 가지고 행해지고 있는 결과상태로서 「てある」와「られてある」의 의미적으로 분석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한다.

## *2.* 연구방법 및 분류

본고의 구성은 먼저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로 「てある」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고, 상에 있어서「てある」가 갖는 문법적 의미로서 상의 개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일본어동사의 상에 관한 동사분류와 함께 상의 형식을 일차적 상의 형식과 이차적 상의 형식, 삼차적 상의 형식으로 나누어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3장은 「てある」의 의미 분석으로 「てある」의 기본적 의미와 「てある」의

파생적 의미로 나누어 용례를 중심으로「てある」의 의미를 고찰해 보겠다. 또「てある」와 「ておく」,「てある」와「れれてある」의 의미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てある」와 「ている」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의미적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Ⅱ. 선행연구의 검토

## *1.* 선행연구

高橋太郎(1969)는 상을 나타내는 형식의 하나로 「てある」에 대해서 「対象に変化を生ずるうごきがおわったあと、その対象を主語として、結果の状態を述語としてあらわしものである」[1)]라고 정의하고 있다. 「てある」는 사용상의 의미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① 눈에 보일 것 같은 형태의 상태

(5) 夏のことで窓はあけはなたれ、細いよしすだれがそこへ<u>さげてある</u>。

② 방임의 상태

(6) クラス会の運営は生徒に<u>自由にさせてある</u>。

③ 준비

(7) 女中にまで<u>口どめしてある</u>。

다음은 吉川武時(1973) 「てある」를「動作の終わった後の結果の状態を表わす」[2)]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かわかす」「なおす」와 같은 대상을 변화시키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에는 변화한 결과의 상태를 의미하고,「話す」「見る」와 같은 대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동사를 단순히 동작이 끝난 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용되는 동사의 성질에 의해 「てある」의 의미가 다르다.「てある」를 선행동사의 성질에 의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

1) 高橋太郎,「すがたともくろみ」,『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むぎ書房, 1969), p.128.

2) 吉川武時,「現代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の研究」,『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むぎ書房,1976), pp.254～266.

① 대상의 위치변화의 결과의 상태

(8) 炉に炭火がいれてある。

② 대상의 변화의 결과의 상태

(9) わたしの家はひとに貸してある。

③ 동작이 끝난 것

(10) アパートをたてるということは十ヵ月も前に発表してある。

④ 방임

(11) 机の上には、読みさしの本をひらきっぱなしにしてある。

⑤ 준비

(12) ちゃんと手を打ってある。

위의 (8)와 (9),(10)은 상적 의미라고 말 할 수 있지만, 예문(11)의 방임과 예문(12)의 준비는 문맥에 의해 준비나 일시적 처지의 의미도 된다.
다음 森田良行 (1977)는 「てある」에 대해 「動作性の他動詞に付いて、その動作・行為の結果が現存するという具体的な状況を添える語」[3]라고 정의하고 있다. 두 개에 의해서 그 의미의 차이를 설명했다. 두 개의 문형은 다음과 같다.

① ～が＋他動詞＋テアル：행위의 결과현존

② ～を＋他動詞＋テアル： 사전 준비, 결과의 축적

①의 행위주체는 제삼자이고 ②의 행위주체는 話し手와 聞き手가 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동사의 성질에 의한 「てある」의 의미에 「置く、並べる、書く、あける」와 같은 행위의 결과가 외견에 나타나는 동작동사는 ① 행위의 결과현존이 되고,「教える、話す、頼む、見る、考える」와 같이 행위결과가 눈에 나타내기 어려운 동사는 ② 결과의 축적이 된다.

마지막으로益岡隆志(1987,2000)는 「てある」를 크게 「受動型」과「能動型」

3) 森田良行,『基礎日本語』, (角川書店,1977),p.51～54.

으로 양분해 다시 각각을 세분했다. 먼저, 「受動型」의 「てある」는 ①배치동작의 결과, 대상물이 있는 장소에 존재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 ②작성동작의 결과, 무엇인가 존재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 ③ 동작의 결과, 대상물의 상태가 변화하면 그 변화한 상태가 시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로 나눴다. 이들은 눈앞의 상황을 묘사하는「結果継続相」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3) 自転車が二台、店の前に置いてあった。
(14) なにやら、ぎっしり文字が彫ってある。
(15) 今夜も彼が帰らないと思ったのか、錠が掛けてあった。

「能動型」의 「てある」는 ① 동작의 결과가 계속하는 것을 나타내는 結果継続相의 경우, ②「パーフェクト相」에 상당하는 경우로 나눈다.

(16) 学生といっても大学に籍を置いてあるだけで
(17) バチラー学園の友人、村上政治に前もって連絡してあった。

위의 예문(12)는 ① 동작결과의 계속을 나타내는 結果継続相의 경우, (13)은 ②「パーフェクト相」의 경우로 이전에 연락한 효과가 発話時에도 남아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てある」의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てある」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 의미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高橋(1969)의 3유형과 森田(1977)의 2유형은 좀 더 상세하게 유형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 중 吉川(1973)를 중심으로「てある」의 기본적 의미와 파생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의미적으로 분류되는 두 가지 유형의 구문적 특징을 보다 상세하게 고찰해 보고자한다.

## 2. 상의 개념

상이란 어떤 사태, 사상을 어떤 일정의 시간적인 폭 내지는 내적과정을 가진 것으로 취해, 그런 과정의 동적인 諸相을 問題로 하고 있는 것이다.[4] 즉,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일정한 시점에서 어느 과정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동사의 형태론적인 カテゴリー라고 한다.[5]

상은 러시아어 및 슬라브諸相에서 19세기부터 논의되어 온 동사의 문법범주로서, 일본에서 상을「相」「態」「すがた」「時相」「様相」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アスペクト」를 가장 많이 쓰고 있다.

## 3. 동사의 분류

동사의 분류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상의 관점에서 金田一春彦(1950)는 동사를 상에 제4종의 동사[6]로 분류 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제1종의 동사로 상태동사는 시간을 초월한 관념을 나타내는 동사로 「ている」를 붙일 수 없다. 「ある、いる、 (可能の) できる、要する、値する」등의 동사가 있다.

제2종의 동사로 계속동사는 어떤 시간 내에 계속해서 행해지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로 「ている」를 붙여서 동작의 진행을 계속 나타낸다.「読む、書く、笑う、泣く、散る、降る、吹く」등의 동사가 있다.

제3종의 동사로 순간동사는 동작과 작용을 나타내고 있지만, 동작과 작용이 순간적으로 끝나버리는 동사로서 「ている」를 붙여서 동작과 작용이 끝난 후, 그 결과가 잔존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死ぬ、点く、消える、見つかる、結婚する、卒業する、到着する」등의 동사가 있다.

---

4) 寺村秀夫,『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 (くろしお出版, 1984), p.115.
5) 国語学会、『国語学辞典』, (東京堂出版, 1981) , p.15.
6) 金田一春彦,「国語動詞の一分類」,『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 ( むぎ書房,1976 ) , pp7～9 .

제4종의 동사로 시간의 관념을 포함하지 않는 동사로서 어떤 상태를 띠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로 항상 「ている」가 붙는다. 「すぐれる、そびえる、おもだつ、すばぬける、あふれる」등의 동사가 있다.

鈴木重幸(1957)는 상태동사와 동작성동사로 구분하였다.[7] 상태동사와 동작성동사를 다시 동작상태동사로 분류하였다. 동작성동사에는 金田一春彦의 계속동사인 계속동작성동사와 순간동사인 순간동작성동사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상에 의해서 분류된 동사를「すがた動詞」[8]로 부른다.

藤井正(1966)[9]은 金田一春彦의 동사분류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의 동사분류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9종의 동사로 분류하였다.

吉川武時(1973)는 계속동사와 순간동사를 「ている」의 형식이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 각기 주체에 변화를 주는 결과동사와 주체에 변화를 주지 않는 비결과동사로 분류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해 보았지만 동사분류마다의 문제점들로 인해 아직 완벽한 동사분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 있어서 동사분류는 金田一春彦의 동사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고 지금까지도 상의 연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 4. 상의 형식

### *4. 1* 일차적, 이차적 상의 형식

상의 형식을 寺村(1984)는 일차적 상의 형식과 이차적 상의 형식과 삼차적 상의 형식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寺村(1984)는 「る」와「た」의 대립을 일차적 상의 형식[10]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본형「る」와 과거형「た」의 대립은 현재와 과거라는

7) 鈴木重辛, 「日本語の動詞のすがたについて」,『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むぎ書房, 1976), p.55.
8) 鈴木重辛, 『日本語文法・形態論』,(むぎ書房, 1978), p.376.
9) 藤井正, 「動詞＋ているの意味」,『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むぎ書房, 1976), p.66.
10) 寺村秀夫,前載書, pp.119～122.

テンス적 대립인데 반해 동적술어의 경우에는 각각 未然과 既然으로 상적 대립이 겹치는 경우가 있다.

이차적 상의 형식으로 동사의 「テ形」에 보조동사를 접속시키는 것으로 「テ形 + 보조동사」를 말한다. 여기는 「ている」「てある」「てしまう」「てくる」「ていく」라는 표현이 있다.[11] 이차적 アスペクト의 형식은 보조동사를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てある」도 이차적 상의 형식에 속함으로 「てある」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다른 형식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ている」부터 살펴보자. 「ている」는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상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동작의「진행」과「결과상태」를 나타낸다. 「진행」과「결과상태」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쉽게 「ている」앞에 타동사가 오는지 자동사가 오는 지로 구별할 수도 있으나, 좀 더 정확히 2가지 용법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ている」앞에 오는 동사가 「계속동사」인지 「순간동사」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 용법에서 파생된 파생적 용법으로는 「반복」「경험」「원래부터의 상태」등이 있다. 「ている」에는 동작의 진행이나, 결과상태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이 「반복」이나 「경험」「단순한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ている」의 용법에 대해 살펴보자.

「ている」가 진행을 나타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ている」앞에는 「계속동사」가 온다. 또한 타동사는 대부분이 계속동사이므로 진행을 나타내는 「ている」는 앞에 타동사가 오는 일이 많다. 하지만 모든 「타동사+ている」가 「진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8) 校長先生は、机で出来た円の中に入ると、ひとりずつ、お弁当をのぞきながら、<u>歩いている</u>。 (窓ぎわの)

(19) 目の前の奇妙な男が早く帰ってくれないかと<u>待っている</u>ソファーの客たちも、誰一人として、私の誕生日と腕時計に隠された秘密を知りはしな

---

11) 益岡隆志, 『文法』, 言語の科学5, 岩波書店, p.64.

いだろう。（博士の）

(20) もうすっかり春のはずなのに、日が暮れてから急に冷え込み、食堂の隅では石油ストーブが燃えていた。（博士の）

(21) 電車の中は、暖かい日差しで、暑いくらいだった。誰かが、窓を開けた新しい。春の風が、電車の中を通り抜け、子供たちの髪の毛が歌っているように、とびはねた。トットちゃんの、トモエでの第一日目は、こんな風に始まったのだった。（窓ぎわの）

예문(18)에 쓰인 동사는 주체인 인간이 걷고 있다는 즉, 인간의 동작이 진행 중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예문(19)은 남자가 빨리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진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20)에 쓰인 동사는 인간의 활동과는 관계가 없이 자연현상 중 「石油ストーブ」가 달아오르고 있었다는 일정한 시간내에 작용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문(21)도 동작・작용의 진행을 나타내고 있다.

자동사 중에서도 순간동사에 해당하는 동사는 「ている」가 붙으면, 우리말로 「～어 있다」로 해석되는 「결과 상태」, 즉 동작 또는 현상의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23) 大木の乗った舟が見えなくなったところで、ぼくたちは桟橋の上で弁当を食べることにした。アキは水着の上から白いTシャツを着ていた。ぼくは海水パンツだけだった。（世界の）

(24) 「この川の向こうだそうです」車に戻ってきた男は、運転席に座っているアキの父親に言った。（世界の）

(25) 小さい花のついた、フェルトの帽子をかぶっている、ママの、きれいな顔が、少しまじめになった。（窓ぎわの）

(26) 丁寧に折畳み、ルートの写真が入っている定期入れの中に仕舞った。（博士の）

(27) 二人は学生というより、サラリーマンとOL風だったが、男は女のうしろでお金を払うのを見ながら立っていた。(遠い過去)

예문(23)은 지금 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 결과를 나타내며, 예문(24)는 앉아 있는 상태로 결과를 나타낸다. 예문(25)는 예문(23)과 같이 착용동사로 모자를 쓰고 이거나 쓴 후의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26)과 예문(27)도 동작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반복의 용법으로 동작이나 작용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28)外国に行ったときはいつもだいたい「ヘラルド・トリビューン」を買って読んでいる。あの新聞は薄くて軽くて情報が密なのでいい。(村上)

(29) しかし『うさぎ亭』ではいつも主人が一人で働いている。彼が一人で仕込みをし、料理を作り、お茶をいれる。(村上)

(30) はい、毎日暑い日がつづいていますがね、えー、まあ夏ですから。(世界の)

(31) 雑誌の名前を正式に発音する自信のない私は、いつもそれをジャーナルオブと縮めて呼んでいた。(博士の)

예문(28)은 「いつも」라는 순간부사가 함께 쓰여 반복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29)도 예문(28)과 마찬가지로 「いつも」가 쓰여 동작이나 작용이 되풀이 되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30)은 「毎日」라는 반복을 나타내는 부사가 함께 쓰여서 매일 더운날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31)도 반복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경험의 용법이다.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32)以前三年ばかり千葉県に住んでいた。事情があって千葉に行って、事情

があって千葉から出てきた。（村上）

(33) 台所で洗い物をいている私に、背後から耳打ちする博士の声の調子を、今でもよく覚えている。（博士の）

(34) いつか博士が話していた、アルティン予想の証明が載っているのだろうか。（博士の）

예문(32)는 삼년 전에 「千葉」에 살았다는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예문(33)～예문(34)는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원래부터의 상태이다. 애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35) 物差しは0からはじまっている。（博士の）

(36) 38は、10が三つと1が八つでできている。（博士の）

(37) 見れば見るほど彼女は僕のその昔のガール・フレンドに似ていた。（村上）

(38) ほんの四、五メートル先まで、山の斜面が追っている。（世界の）

예문(35)는 자는 원래부터 0부터 시작한다는 단순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37)도 옛날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원래부터의 상태로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예문(36)과 예문(38)도 원래부터의 상태로 애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은「てしまう」에 대해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나, 파생적으로 「무의식적인 행위, 유감표명」등 원래는 하지 않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버렸을 때 쓰인다.

완료는 동작이나 작용의완료를 나타낸다.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39) 悶々としているうちにも、夏休みは半分ほど終わってしまった。（窓ぎわの）

(40) やがて「プスッ、プスッ」という音がして、モーターは完全に止まってしまった。（世界の）

(41) たとえばこういう原稿なんか締切のずいぶん前に書いてしまう。（村上）

(42) それから食事が済むとすぐに食器を片づけて洗ってしまう。（村上）

예문(39)는 여름방학이 절반 정도 끝나버렸다는 완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41)은 「ずいぶん前に」강조되어 이미 써버렸다는 완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40)과 예문(42)도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무의식적인 행위를 나타낸다.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44) 真面目な顔をして言ったのがおかしくて、思わず笑ってしまった。（窓ぎわの）

(45) どこがいいのかと訊かれてもうまく説明できないが、聞いていて「うん、そうだな」と自然にうなずいてしまうところがある。（村上）

(46) 彼女を一目見た時、僕はびっくりしてしまった。（村上）

예문(44), (45), (46)은 무의식적인 행위적 행위를 나타낸다. 특히, 예문(44)를 보면 「思わず」가 강조되어 자신도 모르게 웃어버렸다는 것으로 무의식적인 행위적 행위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

화자의 유감스러운 기분이나 후회스러움를 나타낸다.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47) ブライアン・ウィルソンはコカイン中毒でぶくぶくに太ってしまった。

(村上)

(48) 最近はそんなことも<u>なくなってしまった</u>。 (村上)

(49) いちばん大切にしてる、お財布を、トットちゃんは、学校のトイレに<u>落としてしまった</u>からだった。 (窓ぎわの)

예문(47), (48), (49)는 유감의 의미로 화자의 유감스러운 기분이나 후회스러움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47)은 가장 아끼는 지갑을 화장실에 떨어뜨려 버렸다는 유감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てくる」와「ていく」에 대해 살펴보자. 「てくる」와「ていく」는 アスペクト의 의미 중에서 대조적인 관계를 구성한다.[12] 「てくる」와「ていく」는 소멸과 출현으로 시간의 폭을 가지고 이동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먼저「てくる」에 대해 살펴보자.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점진적인 변화의 진행 또는 과정이다.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50) どして、こういう名前になったのかというと、<u>生まれて来る</u>とき、親戚の人や、ママやパパの友達たち、みんなが、「男の子に違いない！」とか、いったものだから。 (窓ぎわの)

(51) 砂漠では毎日毎日、新しい年ががめぐってくる。 (世界の)

(52) アキの顔が目立って<u>痩せてきた</u>。 (世界の)

예문(50)～예문(52)는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점진적인 변화의 진행 또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52)는 점점 살이 빠진다는 것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

12) 益岡隆志, 上掲書, p.64.

다음은 동작 또는 상태 변화의 시작이다.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53) なかに入ることさえできれば、持ってくるのは簡単そうだ。 (世界の)
(54) そのうち、授業の始まるベルの鳴るのが聞こえてきた。 (窓ぎわの)

예문(53)과 예문(54)는 동작 또는 상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나타낸다. 「ていく」에는 없는 용법이다. 예문(54)에서 수업 종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은 상태의 변화의 시작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동작·상황의 계속으로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55)だからつまり僕がずっと大事に守ってきたのは、正確に言えば彼女ではなく、彼女の記憶だったのだ。 (村上)

예문(55)는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동작·상황의 계속으로「ずっと」라는 말이 가까운 과거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ていく」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에서 미래를 향한 점진적인 변화의 진행 또는 과정이다.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56) アジテーションの代価は日毎に上がっていった。 (村上)
(57) 追いかけるぼくの足跡を、風と砂が消し去っていく °( 世界の )
( 58 ) 見ているうちに、その数はどんどん増えていった。 (世界の)

예문(56)~ 예문(58)은 현재에서 미래를 향한 점진적인 변화의 진행 또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57)은 바람과 모래로 인해서 내 발자국이 지워져 가는 것은 점진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예문(58)도 역시 점점 수가 증가해 가는 것이 점진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미래를 향한 동작·상황의 계속이다.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59) ところが実現しなかったことを、わしらはいつまでも大切に胸のなかで育んでいく。 (世界の)

(60) まず自由を手にいれること、そしてそれを維持するために自分たちで問題を解決していくこと。 (村上)

예문(59)~예문(60)도 미래를 향한 동작·상황의 계속의 용법으로 「育んでいく」와「解決していく」에서 동작·상황의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모두 동작사상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내는 일종의 상의 형식이며, 寺村(1984)는 이차적 상의 형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a. (~シテ) イル、アル、シマウ、イク、クル

b. (~シテ) オク、ミル、ミセル [13)]

## 4.2 삼차적 상의 형식

삼차적 상의 형식으로 복합동사로 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寺村(1984)는 이차적 상의 형식를 時間的相, 空間的相, 程度, 密度・强さ・完成등을 나타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時間的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3)寺村秀夫,前載書, p.123.

먼저 시작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はじめる」「～だす」「～かける」가 있다. 그리고 전개을 나타내는 표현으로「～つづける（～つづく）」「～つつある」가 있다. 마지막으로 종료를 나타내는 표현으로「～おわる」「～やむ」「～きる」등이 있다.

시작를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はじめる」에 대해 살펴보자. 「-はじめる」「-だす」는 둘 다「동작이나 작용의 개시(시작)」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쓰임새는 두 가지 표현이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はじめる」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문장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 다음 예문을 통해 「-はじめる」의 용법에 대해 살펴보자.

(61) 祖父はいつものようにワインの栓を抜いた。こうして三十分か一時間くらいおいて、夕食のあとで飲みはじめるのだ。ボルドーの赤を二日で一本という習慣も、ぼくの家で一緒に暮らしていたころから変わらない。
(世界の)

(62) 「出ましょう」ぼくたちはもとの路地を電車の駅に向かって歩きはじめた。二人とも長いあいだ口をきかなかった。(世界の)

(63) 正月が明けてしばらくしたころ、祖父のところでテレビを見ていると、バラエティ番組に有名な作家が登場して、「あの世」について話はじめた。「あの世」はある、と彼は言った。(世界の)

(64) 「バイバイ」というと、定期を駅の人に見せて、ちょっと高い駅の階段を、のぼり始めた。ロッキーは、小さい声で泣いて、トットちゃんが階段を上っていくのを、いつまでも見送っていた。(窓ぎわの)

예문(61)～예문(64)는 동작이나 작용의 시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예문(61)은 「飲む」가 「-はじめる」에 붙어서 저녁부터 「飲みはじめる」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62)는 「歩く」가 「-はじめる」에 붙어서 역으로「歩きはじめた」는 의미를 나타낸다.

「-だす」에 대해 살펴보자. 「-だす」는 자연성, 돌발성, 무의지성이 강해 「急に(갑자기), 突然(돌연)」등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だす」는 주어가 무생물인 경우나, 인간의 생리현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자주 사용 된다. 다음 예문을 통해 「-だす」의 용법에 대해 살펴보자.

(65) 僕はイズミが席を外しているときに、彼女の通っている大学のことでたぶんあとでちょっと聞きたいことがあると思うからと言って電話番号を聞きだした。二日後に僕は彼女のアパートに電話をかけ、もしよかったら次の日曜日に会いたいのだがと言った。 (国境の)

(66) 僕の父は子供のころ、歌のテストで名前を呼ばれて立ち上がっただけで、全員がゲラゲラ笑い出したというのだからかなりひどい。父はすでに亡いが、生前、時たま風呂などで歌っているのをきいたことがあるが、歌に似ているだけで、歌にはなっていなかった。 (遠い)

(67) うちの近くのわりに新しく造成された小綺麗な分譲住宅地を走っていたら、運転手が突然「あのねお客さん、大きな地震がきたらここの家全部倒れちゃうよ」と言い出した。何かと思って訊いてみると、そのあたりの土地は地下水が多くて地盤がゆるいので、地元の人は昔からずっと手をつけないで放置していたのだが、何年か前に土地開発業者がまとめて買いあげて分譲住宅にして売ってしまったらしいのである。 (村上)

(68) OK、OK、確かきのうも話したけどガスパ、カメラを置いてみてくれ、船の左舷だ、おいそのレンズは何ミリだ一〇五ミリか？大きな鼻のカメラマンはあくびを噛み殺して煙草に火を付けながら、五五ミリだけどこれでもちゃんと写るんだぜ、とスペイン語で言った。助手は顔を真赤にして怒り出した。拡声器を口から離し、空を見上げて、勢いよく唾を吐き、船の床を蹴る。 (悲しき)

예문(65)은 전화번호를 듣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시작을 뜻한다. 예문(66)은 「笑

い出した」는 자연성, 돌발성, 무의지성이 강해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 「-だす」가 붙어서 쓰인다. 예문(68)도 예문(66)과 같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 「-だす」가 붙어서 쓰였다.

다음은 「-かける」에 대해 살펴보자. 계속 동사에 접속 될 경우에는 동작의 개시 직전이나 직후 양쪽 모두를 나타낼 수 있다. 순간 동사에 이어질 경우, 동작의 개시 직전만을 나타낸다.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69) 季節の夏だった。彼女はテニムのショート・パンツをはいて、白いTシャツを着ていた。そして彼女は本当に美しかった。彼女はカメラに向かってにっこりと微笑みかけていた。その微笑みは今よりはいくらかぎこちなかったけれど、それでも素晴らしい微笑みだった。 (国境の)

(70) 「茶が来たよ。そっちへやろうか」末松にこう声をかけられた時には謙作はいつか、眠りかけていた。「どうしたんだ」「寝不足なんだ。それにこの天気でどうにもならない」謙作は物憂い身体をようやく起こすと敷居際から這うような格好で、自分の座蒲団へ来て座った。 (暗夜)

(71) キツネザルを見て、「ほら、尻尾を器用に使うのね」と言ったり、ガラスのなかのグリーンイグアナに、「こっちへおいで」と呼びかけたりした。だいたい金を払ってキリンやライオンを見て、どこが面白いのだろう。 (世界の)

(72) 「どうせ下心があるんだろう」と思われるのも不快だ。かといって「退屈してるんだから、ちょっとくらい話しかけたっていいじゃない。きっと小心な男なのね」と思われるのも心外である。 (村上)

예문(69)는 카메라를 향해서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계속동사에 접속되어 동작의 개시 직전이나 직후 양쪽 모두를 나타내고 있다. 미소를 짓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72)도 예문(69)와 같이「話す」라는 계속동사에 접속되어

말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70)과 예문(71)은 순간동사에 접속되어 동작의 개시 직전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 살펴보자.「～つづける（～つづく）」에 대해 살펴보자.「-つづける」는 자동사 타동사 구별 없이 쓰이며,「동작이나 작용의 계속」을 나타낸다.「つづく」는「降る」「鳴る」등 국한된 극히 소수의 동사에 제한되어 사용되는 반면,「-つづける」는 앞에 오는 동사가 자·타동사 양쪽 모두 연결될 수 있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73) そしてある日を境にしてすべてが変わった。小型の高性能電池が開発され、放っておいても時計は何年か動きつづけるということになったのだ。もうねじを巻く必要はありません、と彼らは言った。(村上)

(74) 最初のうち僕はそれを無視していた。誰がきたのかはしらないが、出なければそのうち帰ってしまうだろうと。でもベルは何度も何度も執拗に鳴りつづけた。嫌な感じがした。(国境の)

(75)「私がもしこの地球で生まれ、地球で育っていたら、飽きることはいないと思う、ずっとこの星のために満員の地下鉄に乗り続けたはずだ、やはり、こうこう考え方は良くないんだろうが、年を取ってくると、他の星のことはどうでも良くなってくるんだな」(悲しき)

(76)「きっと朔ちゃん見て、急に思い出したのよ、小さいころの疑問を」「それとも雨の日には、あちこちで同じことをたずねていたとか」雨はあいかわらず降りつづいていた。(世界の)

(77) トットちゃんの一生を決定したのかも知れないくらい、大切な、この言葉を、トットちゃんが、トモエにいる間じゅう、小林先生は、いい続けてくれたのだった。「トットちゃん、君は、本当は、いい子なんだよ」って。 (窓ぎわの)

예문(73)는 방치해 두었던 시계가 몇 년간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로 시계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동작이나 작용의 계속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75)는 만원인 지하철을 계속 탈거라는 의미이고 「乗る 」라는 순간동사에 「つづける」가 접속되어 만원의 지하철을 타는 작용이 계속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74)와 (76)에서「鳴る」와 「降る」라는 계속동사에 각각「つづく」가 접속한 형태로서 작용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예문(77)도 동작이나 작용의 계속을 나타내고 있다.

「～つつある」에 대해 살펴보자. 동작이나 작용이 어떤 방향을 향해 계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경우「-ている」로 바꾸어 쓸 수 있지만, 「-ている」보다 「-つつある」쪽이 문어체적인 느낌을 준다. 순간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동사와 함께 쓰였을 때는 「ている」와는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이 경우, 「-つつある」는 동작이나 상황의 변화가 완성을 향해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ている」는 변화가 완성된 후의 결과상태를 나타낸다. 특히「-つつある」는 추상적인 변화를 나타낼 때 자주 쓰인다.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78) 子供たちが少しずつ大きくなっていくことで、自分もまた少しずつ年を取りつつあるのだということを知った。僕の思惑とは関係なく、子供たちはひとりでにどんどん大きくなっていくのだ。 (国境の)

(79) 遠くに目をやると、陸の方では大きな入道雲がもくもくと生まれつつあった。頭は白く輝いているが、胴体の部分は灰色で、下の方はほとんど真っ黒だった。 (世界の)

(80) ティグレに着き、タクシーに迎えに来てもらう約束をし、パラナ川のリバークルーズをはじめた頃にはもう陽ざしは西日になりつつあった。天気も柔らかい曇りに変わり、涼しくなってきていた。 (不倫と)

(81) 彼はお政のした悪いことをしらなかったし、それに何の同情も持てなかっ

たが、それでもそういう悪事を働きつつあった時の心の状態に比し、今が、よりいい状態だとは言えない気がして、恋に淋しい不快な気持になった。　(暗夜)

예문(81)은「働く」라는 계속동사가 「～つつある」접속되어 동작이나 작용이 어떤 방향을 향해 계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종료를 나타내는 표현대해 살펴보자.

먼저 「～おわる/～おえる」에 살펴보자. 시작과 끝이 있는 계속되는 동작이나 작용이 끝남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V2終る」가 사람(동물)의 의지적인 행동에 쓰이는데 반해、「-おわる / -おえる」는 「다(끝까지) ～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동작을 마지막까지 끝냄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이다. 「-おわる」와 비교하면, 「-おえる」쪽이 해당 동작이나 사태의 목표달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다.

(82) ちょっと考える間があって、みんな一斉に、「山！」とか、「海！」とか叫んで、どっちとも決まらなかった。みんなが叫び終わると、校長先生は、いった。「いいかい、デンブは、海だよ」 (窓ぎわの)

(83) 少しこわかったけど、とてもとても楽しいことだった。すべり終わると、見てた人が、拍手をした。トットちゃんは、スキーの先っちょから立ち上がると、みなさんに、頭を少し下げて、「サンキュー」といった。 (窓ぎわの)

(84) 祖父は台所からオイルサーディンを持ってきた。オイルサーディンをつまみにビールを飲んでいる途中で出前が届いた。鰻重を食べ、肝すいを飲み終えても、祖父の話は終わらなかった。ぼくたちはワインを飲みはじめた。　(世界の)

(85) ぼくたちは黙ってプリンを食べた。プリンを食べ終えるとビスケットを

食べた。食べるのを止めて耳を澄ますと、アキが前歯でビスケットを齧る音が聞こえた。（世界の）

예문(82)「山」과「海」라고 「叫び終わる」라는 의미로 동작을 마지막까지 끝냄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84)와 예문(85)는 「飲む」와「食べる」라는 의지동사에「～おえる」가 접속되어 의지성이 강하게 나타나다.

「～やむ」에 대해 살펴보자.「-やむ」는 비, 바람 등의 자연현상이나, 인간의 무의식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 등을 나타내는 동사에 접속되어, 그러한 동작이나 현상이 종료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극히 국한된 동사에만 연결된다. 특히 「降りやむ」는 「やむ」로 쓰는 것이 보통이다.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86) ぼくは長いあいだ泣いていた。泣き止むとワインを飲んだ。祖父はもう何もたずねなかった。（世界の）

예문(86)은 울음을 그쳤다는 의미로 「～やむ」가 인간의 무의식적 동사에 쓰여서 동작이 종료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きる」에 대해 살펴보자. 「-きる」는 동작이나 사건을 완전히 완료함을 나타낸다. 의지동사에 연결된 경우에는 동작을 의지적으로 끝까지 완료시켜 만족한다고 하는 플러스적인 의미를 나타내며, 무의지동사에 쓰일 때에는 마이너스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특히 무의지동사에「-きる」가 연결될 때는 대부분, 상황이 정도나 한계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87) でもENO（英国国立歌劇場）も忘れるわけにはいかない。この春のロンドン・オペラ界はゼッフィレリのプロデュースした『トスカ』（ロイヤル）とブリテンの『ビリー・バッド』（ENO)の話題で持ちきりであっ

た。僕は残念ながら『トスカ』は見られなかったが、そのかわりフレーニがタチアナを歌うチャイコフスキーの『エフゲニー・オネーギン』（ロイヤル）を見ることができた。（村上）

(88) シェイクスピア劇だって似たりよったりである。でもオペラはそういうのとは全然違う。オペラは末だにリアル・タイムのホットな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なのである。オペラ・ハウスの安い桟敷席は若い人々で溢れているし、人気のある出し物なら切符はあっという間に売り切れてしまう。不思議なものである。（村上）

(89) 今の場合、赤児のために直子に要求するところは、母であって貰うよりは乳牛になり切っていて貰うことだった。で、乳の時以外は全く赤児に近づけないことにしていたが、しかし赤児としては、生れたてのまだ何も分からない赤児ながら、母乳以上の母愛をも要求しないとは言えなかった。（暗夜）

(90) 彼は十時ごろ、ようやく寺け帰って来た。よく途中で、参ってしまわなかったと思うほど、彼は疲れ切っていた。玄関の板敷きで赤児を遊ばせていたお由が、入って来た謙作の様子を見、謙作に声をかけるよりも、驚きから、「お母ァさん、お母ァさん」と家の中に向って、大声に呼立てたほど、謙作の様子も顔色も悪かった。（暗夜）

예문(88)과 예문(90)은 「売る」와「疲れる」라는 무의지 표현에「～きる」가 접속되어 쓰이면 상황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표가 다 팔려버렸다는 것과 녹초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동작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마이너스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Ⅲ. 「てある」의 의미 분석

## *1.*「てある」의 기본적 의미

「てある」에 사용되는 동사는 직접 대상에 작용하여 그 대상을 새로운 상태로 변화 시키는 것으로, 인간 및 동물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만이 「てある」와 결합하여 결과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즉 「てある」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동작이 끝난 후, 그 결과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대상을 변화시키는 동사일 경우에는 그 대상이 변화한 결과의 상태를 나타내지만, 대상을 변화시킨다는 의미가 없는 동사일 경우에는 단순히 동작이 행해진 후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를 예문을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てある」의 기본적 의미에는 대상의 위치변화에 의한 결과상태와 대상의 물리적 변화에 의한 결과상태가 있다.

### *1.1* 대상의 위치변화에 의한 결과상태

대상의 위치 변화라 함은 공간적 존재양식을 말하며,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하여 결과로서의 존재 상태를 나타낸다.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91) 彼は窒息も感電もしておらず、博士と並んで食卓に座っててた。足元にランドセルが置いてあった。居心地が悪いのは、彼らの向かいに、母屋の未亡人の姿あるからだった。 (博士の)

(92) 一階にはロビーとサロンの他に、レストランや厨房があった。レストランの隅には、テーブルと椅子が積み重ねてある。ロビーを抜けて、階段をゆっくり登っていった。 (世界の)

(93)「何か食べない？」アキの母親がたずねていた。父親がテーブルの端に立ててあるメニューを取って妻に渡した。彼女はぼくの目の前でそれ

を開き、自分も一緒に覗き込んだ。 (世界の)

(94) この時期、山頂駅から眺める函館の町はとても美しく、光に満ちてさんさんと輝いているんだ。面白いのは路上にとめてある車のミラーなのか、フロントガラスなのか、に反射する光の瞬きが、まるで路上にちりばめられたガラスのかたまりそのものが光を反射しているかのように見えて、キラキラとそこら中で光を反射して美しい。 (愛を)

(95) 窓の半分は本箱でふさがれ、棚からあふれた書物がそこかしこに山積みになり、壁ぎわのベッドはマットレスが擦り切れていた。机の上にはノートが一冊広げてあるだけで、コンピューターもなく，博士は筆記用具さえ手にしていなかった。ただ宙の一点を見つめているだけだった。 (博士の)

(96) コーリンは、免税店のショーウィンドウによく飾ってある純金の仏像の顔に似ている。目や眉や唇や鼻が細く、全体が上に吊り上がっているのだ。 (悲しき)

예문 (91)은 발밑에 「ランドセル」가 놓여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행위의 결과가 외부에 나타나는 동작동사는 결과의 존재 상태로 위치변화에 의한 결과로서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92)는 레스토랑 구석에 테이블과 의자가 쌓여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테이블과 의자가 쌓여져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쌓아놓은 것으로 존재적 측면에서의 위치변화에 의한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93)은 테이블 끝에 메뉴가 세워져 있는 형태적 측면에서의 위치변화에 의한 결과로서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 (94)～예문(96)의 「てある」도 이상에서와 같이 대상의 위치변화에 의한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 *1.2* 대상의 물리적 변화에 의한 결과상태

이것은 「てある」문의 기본적인 의미로 어떤 대상에 의해 행해진 행위의 결과가

현재의 상태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결과의 상태를 말한다. 구체적인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97) 「それじゃあ、みんなでこれをお上がんなさい」と言って、おばさんは大きいなガラスの皿に細かく切ってあるたくさんのスイカが載ったのを差し出した。 (つぐみ)

(98) 田舎の床屋へ行ったようで、頭は短く刈ってあって、そこだけに青白い肌が見える。

(99) 婦人は喋り過ぎる唇の端から唾を少し垂らしそれを舐める癖があった。婦人の時計は文字盤が三つあり目隠しをして銃殺される死刑囚の像が彫ってあった。0は鳥の卵じゃないかな、僕は答えた。 (悲しき)

(100) 医者が入って来て、容態、経過を訊ねた時には、声は低かったが、案外はっきりそれに答えていた。鯛の焼物—五六理先から、夏の盛りに持って来るのだから、最初から焼いてあるのをまた焼直して出す、—分とはまるで関係ないことのように聴いていた。「.....どうですやろ」小声になってお由が訊くと、医者も一緒に声を落し、「心配はない」と答えた。 (暗夜)

(101) こんなに大きなえびがいるとは知らなかった。今朝釣ってきた雑魚のうちでいちばん大きなやつよりも、ずっと大きいし、よく肥えている。「ずいぶ大きかえん？これでも頭は落としてある。」父親は、満足そうに毛ずねをぴしゃぴしゃたたきながら言った。 (中学)

예문(97)은 수박이 가늘게 썰어져 있다는 것은 대상의 물리적 변화에 의한 결과상태임을 알 수 있다. 예문(98)는 머리를 짧게 깎아져 있다는 것은 대상의 물리적 변화에 의한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99)～예문(101)의「てある」도 이상에서와 같이 대상의 물리적 변화에 의한 결과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てある」의 기본적 의미는 문맥이나 동사의 쓰임에 따라 예문(91)～예문(96)과

같이 대상의 위치변화에 의한 결과상태와 예문(97)～예문(98)은 대상의 물리적 변화에 의한 결과상태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이 「てある」의 의미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그 대상의 결과상태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도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てある」의 파생적 의미

### *2.1* 동작 완료의 「てある」

이하에서 드는 「てある」의 문법적 의미는 대상이 변화한 결과의 상태가 아니라, 단순히 동작의 완료에 중점을 둔 표현이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02) 今日は、四十七士が討入りをした日なので、泉岳寺まで、歩いておまいりに行きます。お家のほうには、もう連絡してありますから。小林先生は、この丸山先生の、やりたい事に、反対はしなかった。 (窓ぎわの)

(103) 9時までにドアを開けてある。

(104) プールからあがるとシャワーを浴び、Tシャツとショート・パンツに着替えてウェイトリフティングをやった。それから家の近くにオフィスとして借りてあるワンルームのマンションに行って、二軒の店の帳簿を整理し、従業員の給与の計算をし、来年の二月に行う予定になっている『ロビンズ・ネソト』の改装工事の計画書に手を入れた。 (国境の)

예문(102)는 「泉岳寺」에 가기 위해서 집에 연락을 해두었다는 것은 대상이 변화한 결과의 상태가 아니라, 단순히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예문(103)도 단순히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までに」가 함께 쓰여 동작이 끝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104)도 단순히 빌려 두었다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고 있다.

## *2.2* 방임의「てある」

방임이라는 것은 대상에 작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의미로 대부분 방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및 동사에 의해 이러한 파생적 의미가 부여된다.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05) 「僕は明後日用があるので、明日の夜行で帰るがね」と石本は言う。「そしてSの返事によって、一週間か十日してまた来るつもりだ。それでこのことには君の直接することは何にもないのだから、都合でいつでも帰るといいよ」「Sにすべて一任してあるが、Sは大概うまく調うだろうと言っているが、そう決め込んで駄目だと落胆するからね.....」「僕も明日帰る。朝の急行で帰る」こう急に謙作は言った。 (暗夜)

(106) 部屋のテレビをつけっぱなしにしてある。

(107) 博士が浴室で行水をしている間に、『JOURNAL of MATHEMATICS』の整理をした。懸賞問題に打ち込む割りに、博士はその雑誌を重要視しておらず、懸賞のページ以外を開くことはほとんどないまま、書斎のあちこちに無造作に打ち捨ててあった。それらを拾い集め、ナンバーの古い順に並べたあと、目次を確認し、懸賞金獲得者として博士の証明が掲載されている号だけ抜き取っていった。 (博士の)

예문(105)은 그가 일을 잘 하든 못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에게 일을 맡겨 둔다는 표현이다. 예문(106)은 텔레비전을 켜둔 채 내버려 둔 결과 상태를 나나태고 있다. 예문(107)은 잡지를 정리하지 않고 서재에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었다는 표현으로 방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2.3* 준비의 「てある」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동작을 끝내놓는 상태를 나타낸다.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08) さて、丑年にちなんで質問をいくつか。(1) アルファベットのAは牛の頭をかたどった象形文字だという説は本当か(2) 牛肉一人あたりの年間消費量世界一はオーストラリア人の約五十四キロ、というのは本当か(3) 牛の鼻紋は、人間の指紋のようにそれぞれ紋状が異る。生まれてきた和牛については個体識別のため鼻紋をとり、血統がわかるようにしてある。本当かうそか。 (天声)

(109) いちばん疑い深くてカンがいいのは、私だから。それからつぐみは庭へ出て、侵入者に向かってほえないよう2匹の犬の口を閉じ、他の人が落ちないようにとカムフラージュしてあったその板をはずし、薄いダンボール紙か何かで本物の落とし穴にした。 (つぐみ)

(110) 筏の乗客はあっという間にびしょ濡れになる。インド人の親子がいる。腹に巻かれた緋色のサリーが水を吸って、大きく突き出た白い肉をさらに圧迫する。時計は大丈夫かしら？アメリカ女は大きな口を開けて耳許で叫んだ。そんな噛み付きそうに大口を開けてないでくれ、ちゃんと防水してあるんだろう？インド人の親子は鼻の脇にダイヤモンドを埋め込んでいる。(悲しき)

(111) 親にキャンプに行くと言ってある。友だちの近くにキャンプのできる場所があり、すぐ前は海だから釣りや海水欲もできる、とかなんとか。 (世界の)

(112) つめたい風が入らないように、まどが閉めてある。

예문(108)은 소의 혈통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鼻紋」를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미리 동작을 끝내놓는 상태를 나타낸다. 예문(109)~ 예문(112)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동작을 끝내놓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てある」는 문맥의 상황에 따라서 「동작의 완료」「방임」「준비」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2.4*「てある」와 「ておく」의 의미비교

「ておく」는 보조동사의 나타내는 표현으로 기본적 용법은 뒤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거나, 그 일에 「대비」해서, 미리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목적을 위해 미리 「준비」한다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는, 파생적으로 일시적인 「방치」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13) 明日試験だから、勉強しておく。

(114) そしてある日を境にしてすべてが変わった。小型の高性能電池が開発され、放っておいても時計は何年か働きつづけるということになったのだ。
(村上 )

예문(113)은 시험공부를 미리 해둔다는 내용으로 준비나 대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예문(114)는 시계를 방치해 두었다는 의미로 일시적인 방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てある」와 「ておく」는 대상의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의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고찰해 보자.

(115) a.一瞬ですが、本気でそんなことを考えたのです。まだその部屋は残してあります。服も、レコードも、ステレオも、大好きだったスキーも壁に立てかけてそのままです。(愛を)

b.一瞬ですが、本気でそんなことを考えたのです。まだその部屋は残しておい

きます。服も、レコードも、ステレオも、大好きだったスキーも壁に立てかけてそのままです。

(116) a.自分が文章を書くのに適したデスクをひとつ定めるのだ。そしてそこに原稿用紙やら（アメリカには原稿用紙ないけれど、まあそれに類するもの），万年筆やら資料やらを揃えておく。（村上の）

b.そしてそこに原稿用紙やら（アメリカには原稿用紙ないけれど、まあそれに類するもの），万年筆やら資料やらを揃えてある。（村上の）

예문(115)a, b는 대상의 결과상태의 지속을 나타내고 있다. 방을 남겨두었다는 의미로 변화한 결과상태의 지속의 존재를 의미한다. 존재적 측면의 변화에 의한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115)a는 예문(115)b에 비해 아직까지 방을 남겨두었다는 것은 대상이 변화한 후에도 결과상태과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문(116)a와 예문(116)b는 의도적 행위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즉, 준비의 결과상태라고 볼 수 있다. 예문(116)a와 예문(116)b는 준비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고 있지만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다.  예문(116)a는 문장을 쓰기위해 준비해 둔다는 준비를 위한 동작을 나타내고 예문(116)b는 문장을 쓰기위해 미리 준비해 둔다는 결과상태로 준비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5* 「てある」와 「られてある」의 의미 비교

「てある」의 의미는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그 대상의 결과상태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의도성에 대해「てある」「ている」「られている」의 관계를 寺村(1984)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その眼前の状態が、何らかの外部からの力、作用によってもたらされたものであると捉えられた場合は、～ラレテイルか～テアルになる。そうではない場合、

つもり自然にそのようにあると捉えられた場合、自動詞の～テイルになる。・・・<中略>・・・その「外部からの力、作用」が、人が意図をもってした作為であると捉えられた場合は～テアルに、そうではない場合（つまり自然の力か、人の動作でも非意図的な動作による場合）、～ラレテイルになる。

「てある」와「られている」를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7) a.ルートの寝息が聞こえるように、部屋の扉は半分開けたままにしてあった。博士にプレゼントしてもらったグローブが、枕元に大事に置いてあるのが見えた。（博士の）

b.博士にプレゼントしてもらったグローブが、枕元に大事に置かれているのが見えた。

위의 예문 (117)a는 선물 받은「グローブ」가 머리맡에 소중하게 놓여있다는 의미로「グローブ」를 의도적으로 머리맡에 놓았다는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グローブ」가 「枕元に大事に」놓여 있는 것으로 「てある」가 의도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117)b는 예문(117)a와 마찬가지로 「置かれている」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행해진 그 대상의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ている」를 타동사에서 결과상태를 나타낼 경우에는 「受動形＋ている」의 형식으로 사용 할 수 있다.「てある」와「られている」를 비교해 보았다.

다음으로「られてある」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한다. 「てある」의 유사표현으로서「られてある」를 들 수 있다. 寺村(1984) 는「られてある」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他動詞］～テアルは、基本的には～ラレテイル、～テイルと対立してその表

現的機能をうけもっているのだから、その他動詞の受身形が～テアルとなるはずは(理屈からいうと) ないわけだが、実際には小説などでわりによく見かける。

위와 같이「られてある」의 표현을 소설에서 자주 볼 수 있다. 受動型의「てある」의 구문은 受動形式(「られてある」)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られてある」는 의지적 행위의 결과상태를 나타낸다.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결과상태인「られてある」는 「てある」보다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배제하고 있다.

(118)a.そう思うと、昨夜までの疑念などどこかへ消えてしまい、むろん完全にあなたのことを信じたわけではないのですが、いやあなたの手紙にも書かれてあった通り私は人間を信じることのできない人間ですから、疑いを捨てきれないままと言った方が適切でしょうが、疑って疑って疑りぬいたあげくに、再び手紙を開いてしまっていたのです。 (愛を)

b.そう思うと、昨夜までの疑念などどこかへ消えてしまい、むろん完全にあなたのことを信じたわけではないのですが、いやあなたの手紙にも書かれていた通り私は人間を信じることのできない人間ですから、疑いを捨てきれないままと言った方が適切でしょうが、疑って疑って疑りぬいたあげくに、再び手紙を開いてしまっていたのです。

(119) a.「ママ！あれ、本当の電車？校庭に並んでるの」それは、走っていない、本当の電車が六台、教室用に、置かれてあるのだった。トットちゃんは、夢のように思った。″電車の教室.....。″ (窓ぎわの)

b.「ママ！あれ、本当の電車？校庭に並んでるの」それは、走っていない、本当の電車が六台、教室用に、置かれているのだった。

(120) 幸夫のとった解決法は必ずしも最上のものとは思われなかったが、しかし、一つの解決法であったことは事実であった。洪作は自分も早くそうす

ればよかったと思った。荒っぽい行為ではあったが、明らかにあき子の抗議への反発もそこにはこめられてあった。洪作は、小鳥をとることの残酷さを、あき子によって指摘され、それはそれで十分心にこたえたのであったが、またいっぽうそうしたあき子の抗議に対して反発するものもあった。 (中学)

(121) 「昨日話で昨晩とか言ってたよ」「そう。約束は出来ないが、もしかしたら出して貰うかも知らない」座敷に食事が用意されてあった。そして今日は珍しくお栄も一緒に食卓に就いた。 (暗夜)

예문(118)a의「書かれてあった」는「書く」라는 작성동사의 결과상태로「られてある」의 경우는 누군가 뭔가를 위해서라고 말한 동작주의 의도성을 나타내고 있다. 「られてある」가 「られている」로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예문(118)b의 경우「られている」는 의도성을 배제한 단순한 결과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119)a는 「置く」는 배치 동작의 결과 상태로 대상물이 어떤 장소에 존재한다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電車」가 교정에 놓여 있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電車」를 갖다 놓았다는 것으로 보아, 의도성을 포함하고 있다. 예문(119)b는 예문(119)a에 비해 비의도적인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120)도「あき子」의 항의에 대한 반발이 담겨 있었다는 의미로 의도성이 포함된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121)은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상태이다. 외부적인 힘이나 작용에 의해 대상이 변화한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てある」와「られている」,「られてある」의 의미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한다.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22)a.彼は手を出しそこだけ扇をもっと開いて見た。それは盃のある菊で、それがあってはその手は役にならなかった。謙作はその盃だけが上の机で完全に隠されてあるところから、これは直子がずるをしようとしたのだと思っ

た。 (暗夜)

b.。謙作はその盃だけが上の机で完全に隠されているところから、これは直子がずるをしようとしたのだと思った。

c.。謙作はその盃だけが上の机で完全に隠してあるところから、これは直子がずるをしようとしたのだと思った。

예문(122)a, b, c를 의도성의 관계를 고찰해 보면 예문(122)c의 「隠してある」가 가장 의도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예문(122)b인「隠されてある」이고 예문(122)c의 「隠されている」가 거의 의도성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예문(122)c는 동작주의 행위를 배제한 단순한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 Ⅳ. 「てある」와「ている」의 비교 분석

「てある」의 기본적 의미로 「대상의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ている」는 「동작・작용의 결과상태」를 나타낸다. 「ている」의 기본적 의미는 2. 4에서 살펴보았다. 「てある」와 「ている」는 「결과상태」라는 의미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의미에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타동사＋てある」와 「자동사＋ている」의 의미적 차이를 살펴보자. 「타동사＋てある」와 「자동사＋ている」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23) a.窓の半分は本箱でふさがれ、棚からあふれた書物がそこかしこに山積みになり、壁ぎわのベッドはマットレスが擦り切れていた。机の上にはノートが一冊<u>広げてある</u>だけで、コンピユーターもなく、博士は筆記用具さえ手にしていなかった。ただ宙の一点を見つめているだけだった。 (博士の)

b.目を閉じて水の上に浮かんでいると、瞼の裏側が真っ赤だった。小さな波が耳を洗って音をたてた。そっと目をあけて横を見ると、アキの長い髪がまるで墨を流したように水面に<u>広がっていた</u>。 (世界の)

(124) a. これは、ヨーイドン！で、少し走って、横に長く置いて<u>立ててある</u>、木の梯子の、段と段の間を通り抜け、そのむこうにある籠の中の封筒から、紙をとり出し例えばそれに、「サッコウちゃんのお母さん」と書いてあったら、見物人の中に行って、サッコウちゃんのお母さんを探し、手をつないでゴールインするのだった。 (窓ぎわの)

b. これは、ヨーイドン！で、少し走って、横に長く置いて<u>立っている</u>、木の梯子の、段と段の間を通り抜け、そのむこうにある籠の中の封筒から、紙をとり出し例えばそれに、「サッコウちゃんのお母さん」と書いてあったら、見物人の中に行って、サッコウちゃんのお母さんを探し、手をつないでゴールインするのだった。 (窓ぎわの)

(125) a.「博士が解いた算数？」「そうね」「でも、どうしてこんな所に隠してあるんだろう」不思議でならないいうように、ルートが言った。 (博士の)

b. 笑う奴、憐れむ奴、などがあるにしても、自分たちは最初からそういう人々には知らない場所に隠れているのだ。彼らは笑うことも憐れむことも出来ない。 (暗夜)

예문(123) a는 책상 위에 노트 한권이 펼쳐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노트가 펼쳐져 있는 것은 누군가 일부러 펼쳐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대상이 변화한 결과상태로서 「타동사＋てある」의 문이다. 「타동사＋てある」문은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문(123)b는「자동사＋ている」의 문으로 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긴 머리카락이 마치 먹물을 뿌린 듯 수면에 펼쳐져 있었다는 결과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124) a와는 달리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동작이 일어난 경우이다. 예문(124) a는 옆으로 세워져 있는 사다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타동사＋てある」의 문이다. 이것도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운동회에서 사다리를 통해서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横に長く置いて立ててある」는 운동 경기를 하기위해서 외부의 작용이나 힘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상태이다. 예문(124) b는 「자동사＋ている」의 문으로 의도성이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예문(125) a는 수학논문을 어떤 곳에 숨겨놓았다는 설정으로 「타동사＋てある」의 문으로 결과상태를 나타낸다.「 どうしてこんな所に」를 통해서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으로 의도성이 포함되어 있다. 예문(125)b는 「자동사＋ている」의 문이다.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게 외부의 힘이나 작용을 받지 않고 동작이 일어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最初から」와「知らない場所に隠れている」가 의도성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타동사＋てある」와 「자동사＋ている」를 살펴보았는데, 양쪽 모두 동작의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타동사＋てある」는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자동사＋ている」는 자연스럽게

또는 저절로 그러한 상태로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은「자동사＋ている」와「타동사＋てある」,「타동사＋られている」에 대해 의미적 차이를 살펴보겠다.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26) a. 「少し眠ったから、だいぶよくなった」べっとに起き上がり、椅子の背に掛けてあるカーディガンを取って、パジャマの上から羽織った。(世界の)

b.「少し眠ったから、だいぶよくなった」べっとに起き上がり、椅子の背に掛っているカーディガンを取って、パジャマの上から羽織った。

c. 「少し眠ったから、だいぶよくなった」べっとに起き上がり、椅子の背に掛けられているカーディガンを取って、パジャマの上から羽織った。

예문(126)a, b, c 모두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있지만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다. 예문(126)a 는 「타동사＋てある」의 문으로 의자에 「カーディガン」걸쳐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누군가 「カーディガン」이라는 대상을 의도적으로 의자에 걸쳐 놓았다는 것은 의도성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상태를 나태고 있다. 예문(126)b는「자동사＋ている」의 문이다. 외부의 작용과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대상이 변화한 결과상태라고 볼 수 있다. 예문(126)c는 「타동사＋られている」문이다. 「타동사＋てある」와 같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행해진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자동사＋ている」와「타동사＋てある」,「타동사＋られている」에 대해 고찰해 보았는데, 「타동사＋てある」와「타동사＋られている」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다. 이상과 같은 대응 관계를 보이는「타동사＋てある」와「타동사＋られている」의 실제 용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127) a. でも今のように、ジーンズなど丈夫な布地のない時代だったから、どの子のズゾボンも、つぎがあたっていたし、女の子のスカートも、出来るだげ、丈夫な布で作ってあった。 (窓ぎわの)

b.その愛すべき機械は我々が日常的に把握できるまともな材料で－ガラスと木とバネと金属とゴムと豆電球で－作られていた。ぼくのような機械構造に疎い人間にだって、それがどういう仕組みになっているのかはおおよそ理解できた。(村上の)

(128) a 窓がくり抜いてあって、中にはおもちゃのテーブルが置いてあって、ろうそくが灯っていたわ。壁紙もきちんと塗ってあって、中は花柄が描いてあった。絵心があったから、とてもかわいらしい美しい紙のおうちっだった。(不倫と)

b. 電話機にはレセプションだとか、ルームサービスだとか、外線電話だとか、モーニングコールだとかの番号がイラストで描かれていた。(不倫と)

(129) a 店をしまって、小僧たちが横手の口から帰るところだった。飾窓には埃及模様をつけた悪趣味の書棚が飾ってあった。 (暗夜)

b. 私はその小さな建物、ちょうどこの墓地に立ち並ぶお墓くらいの大きさだった.....に入り、いろいろな窓から外を見たり、小さな家具や飾られている絵を見て、楽しんだ。(不倫と)

예문(127)a는 바지와 스커트가 튼튼한「布」로 만들어져 있다는 의미다.「丈夫な布で作ってあった」라는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있다.「丈夫な布地のない時代だったから」「丈夫な布」로 만들고 있다는 외부의 작용과 행위에 의해 의도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作る」라는 동사는 작용의 결과로서 새로 만들진 것이 일정한 평면과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예문(128)b도 예문(127)a와 마찬가지로 대상의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있지만, 「日常的に把握できるまともな材料で作られていた」문에「作られていた」가 쓰여서 비의도적인 행위의 결과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128)a는 벽지에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다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꽃무늬가 그려져 있는 것은 의도성을 포함하고 있다. 예문(128)b는 전화기에는 리셉션, 룸서비스, 외선전화, 모닝콜의 번호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

는 내용이다. 전화기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은 외부의 작용과 행위에 의해 의도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닌, 단순한 결과상태로서 비의도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문(129)a는 진열장에 책장이 장식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 예문은 「飾窓には埃及模様をつけた悪趣味」에서 의도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문(129)b는 벽에 그림이 걸려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飾られている絵」는 그냥 벽에 그림이 걸려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실로 비의도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타동사＋てある」와「타동사＋られている」에 관한 의미적 차이를 고찰해 보았다. 「타동사＋てある」는 누군가에 의한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결과상태이고,「타동사＋られている」는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라 하더라도 비의도적인 동행위를 나타내는 결과상태이다.

이상의「자동사＋ている」와「타동사＋てある」,「타동사＋られている」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동사＋ている」는 어떠한 결과 상태가 인위적이든 아니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해당 사태의 결과나 변화만을 단순히 평면적으로 표현할 경우 쓰인다.「타동사+てある」는 어떠한 결과 상태가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의 결과로 파악되는 경우에 쓰인다. 「타동사+られている」는 어떠한 결과상태가 자연의 힘 등의 외적 요인에 의해 성립되어 있거나 또는 사람의 동작(행위)이라 하더라도 비의도적인 동작(행위)에 의해 성립되어 있을 때 쓰인다.

# Ⅴ. 결론

일본어 상의 대표적인 「てある」의 의미・용법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다양한 의미표현을 보이는 「てある」를 기본적 의미와 파생적 의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여구로서의 상에 있어서「てある」가 갖는 문법적 의미로서 상의 형식을 일차적 상과 이차적 상의 형식과 삼차적 상의 형식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할 수 있다. 일차적 상의 형식은「る」와「た」의 대립이고, 이차적 상의 형식으로 동사의 「テ形」에 보조동사를 접속시키는 것으로 「テ形 + 보조동사」를 말한다. 여기는 「ている」「てある」「てしまう」「てくる」「ていく」라는 표현이 있다. 이차적 상의 형식은 보조동사를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리고 삼차적 상의 形式으로 복합동사로 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시작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はじめる」「～だす」「～かける」가 있다.

그리고 전개을 나타내는 표현으로「～つづける（～つづく）」「～つつある」가 있다. 종료를 나타내는 표현으로「～おわる」「～やむ」「～きる」등이 있다.

둘째,「てある」의 기본적 의미는 「결과상태」이다. 이 「てある」의 결과상태는 동사의 쓰임이나 문맥에 따라 대상의 위치가 변화한 결과상태와 대상의 물리적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상태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てある」의 파생적 의미로 「동작의 완료」「방임」과「준비」가 있다 「동작의 완료」는 대상이 변화한 결과의 상태가 아니라, 단순히 동작의 완료에 중점을 둔 표현이다.「방임」은 대상에 작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의미로 대부분 방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나 방임의 의미를 갖는 표현 등에 의해 표현된다.「준비」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 동작을 끝내놓은 상태를 말한다. 이와 같이 「てある」는 문맥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계속동사가 「ている」에 접속하여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고, 순간동사가 「ている」에 접속하여 「동작의 결과상태」를 나타낸다.

넷째, 「てある」는「ておく」 의 변화한 결과상태의 지속의 존재을 의미한다.「ておく」가 준비를 위한 동작을 하는데 반해 「てある」는 그 동작의 결과상태가 그대로 유지됨을 나타낸다.

다섯째, 「られてある」와「てある」의 공통점은 대상의 결과상태를 나타낸다.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결과상태인「られてある」는 「てある」보다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배제하고 있다.

여섯째, 「てある」와「ている」는 공통적으로 「결과상태」의 의미표현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 차이점을 살펴 보면, 「자동사＋ている」는 어떠한 결과 상태가 인위적이든 아니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해당 사태의 결과나 변화만을 단순히 평면적으로 표현할 경우 쓰인다.「타동사+てある」는 어떠한 결과 상태가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의 결과로 파악되는 경우에 쓰인다. 「타동사+られている」는 어떠한 결과상태가 자연의 힘 등의 외적 요인에 의해 성립되어 있거나 또는 사람의 동작(행위)이라 하더라도 비의도적인 동작(행위)에 의해 성립되어 있을 때 쓰인다.

이와 같이「てある」는 문맥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타동사＋られてある」에 대해 고찰해 보았는데 앞으로「타동사＋られてある」를 연구문제로 삼아 좀 더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해 보고 싶다.

# <참고문헌>


**예문출전**

小川洋子，『博士の愛した数式』，新潮文庫，2005　（博士の）

片山恭一　，『世界の中心で、愛をさけぶ』，小学館，2001　（世界の）

志賀直哉，『暗夜行路』，新潮文庫，1921　（暗夜）

黒柳徹子，『窓ぎわのトットちゃん』，講談社，1981　（窓ぎわの）

辻仁成，『愛をください』，新潮文庫， 2003　（愛を）

村上春樹,『国境の南、太陽の西』， 1992　（国境の）

村上竜，『悲しき熱帯』，角川文庫、1984　（悲しき）

吉本ばなな，『つぐみ』，幻冬舎文庫，1992　（つぐみ）

吉本ばなな，『不倫と南米』，幻冬舎文庫，2003　（不倫と）

渡辺淳一，『遠い過去　近い過去』，角川文庫、1998　（遠い過去）

다락원 출판부,『中学校教科書選』,다락원, 2001, （中学）

**단행본**

庵功雄（2001）,『新しい日本語文学入門ことばのしくみを考える』,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奥田靖雄(1978), 「アスペクトの研究をめぐって』,『日本語研究の方法』,むぎ書房

金田一春彦(1976),「國語動詞の一分類」,『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むぎ書房

高橋太郎（1969）,「すがたともくろみ」,『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むぎ書房

国立国語研究所　編　（1985）,『現代日本語のアスペクトとテンス　』, 国立国語研究所

藤井正(1976), 「動詞＋ているの意味」,『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むぎ書房

砂川有里子(1986), 『日本語文法セリフマスターシリーズ 2 する・した・している』, くろしお出版

工藤真由美（1995）,『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キストー現代日本語の時間の表現ー』,

ひつじ書房
鈴木重辛(1976),「日本語の動詞のすがたについて」,『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むぎ書房
鈴木重辛(1978), 『日本語文法・形態論』,むぎ書房
町田建(1989), 『日本語の時制とアスペクト』,アルク書房
森田良行 (1977),『基礎日本語』, 角川書店
寺村秀夫(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くろしお出版
益岡隆志・仁田義雄・郡司隆男・金水敏 ( 2004 ) 『文法』,「言語の科学５」岩波書店
吉川武時 ( 1976 ),「現代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の研究」,『日本語動詞のアスペクト』,むぎ書房

**논문**

金水敏 ( 2006 ),「日本語アスペクトの歴史的研究」, 『日本語文法』 6巻2号
工藤真由美 ( 1982 ),「シテイル形式の意味のあり方」『武蔵大学人文学会雑誌』第13巻 第4号
高橋純 ( 1997 ),「結果相のテイルとテアル」, 『学習大学人文科学論集Ⅵ』
寺村秀夫(1982),「テンス・アスペクトのコト的側面とムード的側面」,『日本語学』 ( １ー12 ),明治書院
中畠孝幸 ( 1998 ),「結果を表す構文についてーテアルとラレテイルー」,『明治大学教養論集』(101ー116 )
原沢伊都夫 ( 2005 ) , 「テアルの意味分析ー意図性の観点からー」,『日本語文法』 5巻1号
前田綱紀 ( 1982 ),「「...している、...してある」の日本語朝鮮語対照」,『日本語教育』48号,日本語教育学会

**학위논문**

金旼慶(2004),「テイル」「テアル」의 意味・用法에 관한 고찰」,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金惠林(1992), 「현대일본어 조사의 상에 관한 고찰－「～ている」와「～てある」를 중심으

로－」,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金炫希 (1995),「日本語動詞의 アスペクトに 대한 考察」,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李秉槿(1986),「現代 韓·日 兩國語 動詞의 Aspect에 關한 比較 硏究」,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趙宣映(2005),「日本語の「テアル」形の意味と類型」,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洪明玉(2002),「「~てある」と「~ておく」の意味分析」,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사전류**

国語学会(1981), 『国語学辞典』, 東京厚堂出版
日本語教育学会 編 ( 2005 ) 『新版 日本語教育辞典』,大修館書店

# 저작물 이용 허락서

| 학 과 | 일어교육 | 학 번 | 20038154 | 과 정 | 석사 |
|---|---|---|---|---|---|
| 성명 | 한글: 김 은 진 한문: 金 恩 珍 영문: Kim Eun-jin | | | | |
| 주소 | 전남 화순군 동면 장동리 2구 805-2 | | | | |
| 연락처 | 집전화 : 061)373.7317 E-MAIL : kimeunjin1021@hanmail.net | | | | |
| 논문제목 | 한글 : 일본어 「てある」의 의미·용법에 관한 연구<br>영문 : The Meaning And Usage of「tearu」in Japanese | | | | |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 년 1 월 일

저작자 : 김 은 진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